

MERCOSUR와 美洲자유무역 협상

김 원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남미비교정책학

I. 서언

세계의 무역질서는 오늘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특징지어지는 다자주의의 활성화와, 유럽과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역주의 팽배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1994년 12월에는 미주대륙과 카리브해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계획이 명문화됨으로써 미주 국가들은 그간 추진해 온 小地域主義的 접근을 채 완성하기도 전에 ‘大地域主義’의 추구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미주의 변화는 1995년 초 멕시코에서 일기 시작한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세인의 관심범위를 다소 벗어나긴 했지만, 그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미주에서 소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간의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이다. 미주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 유럽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아시아경제권이 급부상하면서 일본의 역내 입지가 더욱 높아지는 등 세계의 경제블록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 UR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무는 동안 나름대로의 경제블록 형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NAFTA와 MERCOSUR 외에도 중미와 안데스지역, 카리브해에서도 종전의 지역협정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미주내에 등장한 각종 형태의 지역별 경제통합체들은 UR 협상이 완료된 뒤에도 통합의 내적심화를 기하는 한편 외적확대를 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은 미주내 지역경제통합의 내적심화 및 외적확대 움직임 속에서 중남미 경제통합체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인 MERCOSUR의 내적심화 및 외적확대전략이 FTAA 추진과정 및 협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II.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추진현황

1. 미국의 EAI 발표와 NAFTA

부시 전 미 대통령은 1990년 6월 27일 외채경감, 무역증대, 투자확대, 환경문제를 포괄한 '미주를 위한 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을 발표하면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港에서 칠레 남단의 띠에라 델 푸에고에 걸치는 쏘美洲 대륙을 자유무역지대화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미주 자유무역이 장기목표로서 10여년 후에 결실을 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EAI 발표에 앞서 캐나다와 1989년 1월을 기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USFTA)에 돌입했다.

EAI 발표는 개발도상권인 중남미와의 자유무역 실현이라는 획기적인 구상이었다. EAI 선언이 나오기 직전인 1990년 6월 10일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은 미-멕시코 양국간 자유무역을 제의하였고, 곧 양국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던 캐나다는 미-멕시코간의 자유무역이 캐나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1991년 미-멕시코 협상에 합류, 1992년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미국내 비관여론에 따라 1993년에는 '환경 및 노동에 관한 부속협정'이 추가로 조인되었다. 이로써 사실상 EAI의 정신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된 셈이다.

2. 중남미의 경제통합 가속화

EAI 선언 이후, 그리고 NA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남미에서는 개별국가간 또는 지역별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1980년 중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을 제외한 중남미 11개국은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ón: ALADI;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LAIA)를 발족시켜 궁극적으로 '중남미공동시장'을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였다. ALADI는 1960년 몬테비데오조약으로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LAFTA)의 후신으로서, 관세인하제도를 종전보다 신속적으로 운영하여 역내 교역증진에 기여하였다. 이 중에는 지역관세특혜(Regional Tariff Preference),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부분협정(Partial Agreements)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부분협정의 한 유형인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s)은 특정 산업분야의 공업화계획을 관세인하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서 1980년대~90년대를 통해 역내 자유무역 기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¹⁾

또한 1960년대~70년대 각자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기울였던 중미국가들과 안데스지역 국가들,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들은 NAFTA에 큰 자극을 받아 관세동맹 형태의 기존 통합기구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는 1991년 MERCOSUR를 창설했다. 이로써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파나마, 수리남을 제외한 미주 29개국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서로 배타적인 지역별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게 되었다.²⁾

한편, 안데스그룹내의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1993년 4월 자유무역협정, 즉 'G-3'를 체결하고 이를 1995년 1월 발효시켰다. G-3는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지적재산권 보호 등 NAFTA의 모든 장을 포함한 중남미 최초의 협정이라는 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안데스 그룹의 나머지 국가들과 칠레도 G-3에의 참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3. 마이애미 미주정상회의

1994년 12월 9일~11일까지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한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정상들은 4개 분야에 걸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에서 '경제통합 및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추구'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 골자는 미주국가들이 무역 및 투자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목표 아래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Area de Libre Comercio de las Américas: ALCA)의 창설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 금세기 말까지 실질적인 진

-
- 1) 김우택 참조. ALADI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주의의 구시대 개념에 기초하고 있어 오늘날의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개방적 지역주의 개념에 비할 때 엄격히 말해 사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이 중 수리남은 1995년 카리브공동체(CARICOM)에 가입했고, 파나마는 최근 중미공동시장(CACM)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는 CARICOM, 중미 6개국, G-3 등 25개국 및 15개의 속령과 함께 카리브국가연합(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ACS)에 참여하고 있다. 인구 2억 400만명, 연간 교역액 1,800억 달러, GDP 5,000억 달러의 경제규모인 ACS는 1995년 8월 공식 발족되었다.

전을 달성한 뒤, 늦어도 2005년까지 협상을 결말짓는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에서는 미주제국이 FTAA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시장개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농산물, 보조금,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기술적 무역장벽, 긴급수입제한 조치, 원산지규정, 반덤핑과 상계관세, 위생과 식물위생 기준과 절차, 분쟁해결 및 경쟁 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외에도 FTAA 창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즉각행동 일정'이 제시되었다.

- 1995년 1월부터 미주내 각 지역협정 당사국들과 미주기구의 무역특별위원회(OAS-SCT)는 기존협정 등을 연구하여 FTAA를 실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작업에 착수함.
- 1995년 6월 미주 무역장관들은 각 지역협정 및 OAS-SCT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아 즉시 검토할 분야를 결정함.
- 1996년 3월 미주 무역장관들은 각 지역협정 및 OAS-SCT의 최종보고서들을 검토한 후 추후 작업일정을 정함.

FTAA 창설 열기는 1995년초의 멕시코 금융위기와 페루-에콰도르간 국경충돌로 다소 식은 감은 있으나, OAS-SCT를 형식상의 사무국역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진행을 마이애미 정상회의를 준비한 미국 국무부 정상회의 준비팀이 임시로 맡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여러 기회를 통해 미주경제통합 의지를 관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FTAA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에 비중을 둔 제1차 미주무역장관회의(Hemispheric Meeting of Trade Ministers)를 1995년 6월 30일, 그리고 1,300 여명의 업체지도자와 무역관리들간의 연석회의인 제1차 미주무역통상포럼(Hemispheric Trade and Commerce Forum)을 7월 1~2일 각각 미국 덴버에서 개최하였다.

4. 덴버 미주무역장관회의

미국의 미키 캔터 무역대표가 주재한 제1차 미주무역장관회의에서는 향후 FTAA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에 비중이 두어져 다음과 같은 기본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식 협상 기반이 구축되었다.

- FTAA는 기존의 쌍무 및 소지역협정들에 기초하여 기존의 역내경제통합을 확대·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함.
- FTAA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제규정과 전적으로 양립되어야 하며, 역외국가들에 대해 장벽을 설정하지 말아야 함.
- 역내 각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규모의 차이를 감안, 약소국 경제의 통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개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함.
- 시장접근(Market Access, 엘살바도르 주관), 관세 및 원산지규정(Custom Procedures and Rules of Origin, 볼리비아), 투자(Investment, 코스타리카), 무역업무 표준화(Standard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캐나다), 식품위생 관련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멕시코), 정부보조금 및 반덤핑, 상계관세(Subsidie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아르헨티나), 약소국(Small Economies, 자메이카) 등 7개 부문의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1996년 3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제2차 무역장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2차 무역장관회의 이후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서비스(Services) 및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치함.
- 환경 및 노동자권리의 준수 및 증진에 관한 문제는 각국이 검토함.

덴버회의에서는 FTAA의 형성방법이 기존의 지역협정들에 기초한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있었지만 NAFTA나 MERCOSUR 중 어느 것을 모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혼합형태를 취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개 실무그룹 주관국가들은 FTAA 추진에 매우 열정적인 국가들이다. 7개 실무그룹의 주관국가에 미국과 브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정치적으로 두 국가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라질은 FTAA 협상의 진행속도를 늦출 것을 줄곧 요구해 4개 분야실무그룹의 설치를 연기시켰으며, 7개 그룹의 중간결과 완결일자 명시를 반대하였다.

대신 미주무역차관들이 1996년 3월 장관회의에 앞서 실무그룹들의 작업 진척상황을 검토하기로 되었고, 그 의장은 제2차 장관회의 의장국인 콜롬비아가 맡는다. 한편, 마이애미 정상회의의 행동계획에서도 나타났듯이 OAS와 미주개발은행(IDB), 유엔산하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등은 계속 분석지원, 기술지원, 유관연구를 제공기로 되었다.

덴버회의 후 미국쪽에서 나온 평가는 FTAA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의 무역자유화 의지뿐만 아니라 미주 경제통합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무역협상의 골격은 2000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신속처리권한 문제 등 미국의 내부적인 장애와 MERCOSUR의 확대전략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있다.

III.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추진배경

1. 미국의 FTAA 추진배경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후 1970년대까지 GATT를 발판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해왔으나, 1980년대 들어 유럽통합의 가속화와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들로부터의 첨예한 경쟁에 직면하여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미국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농산물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창하며 UR 협상을 주도하는 한편, 다자간 협상의 보완책으로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全方位 무역협상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1월에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CUSFTA), 1994년 1월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효시켰으며, 1994년 11월에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2020년까지 역내 투자 및 무역자유화의 실현을 골자로 한 '보고르 선언'을 도출해냈다.

미국은 특히 경제블록간의 경쟁에서, 유럽연합(EU)이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일본이 아시아지역에서 유리한 경제적 입지를 굳히고 있듯이, 미주를 자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으로 택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 대미주 총수출이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동서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합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FTAA가 실현되면 미주대륙은 북미의 자본과 기술, 중남미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로 등장하게 된다 (<표 2> 참조).

따라서 WTO로 대변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개별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방적, 쌍무적, 지역적 무역조치들을 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인상이 짙은 다각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

는 셈이다.

FTAA는 미-중남미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미국은 2차대전 후 1980년대까지 안보차원에서 중남미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자처했으며, 경제관계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1959년 쿠바혁명 이후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이른바 ‘발전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 계획에 따라 사회개발사업에 대한 원조를 제공했으며, 1979년 니카라과 혁명 이후에는 카리브해지원계획(CBI)에 따라 중미 및 카리브해 국가들에 무역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사라지면서 중남미 국가들은 민주화를 달성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시장경제개혁의 가속화 및 연평균 3~4%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무역파트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1985년 300억 달러에서 1994년 8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그 동안 60만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010년에는 미국의 대중남미 수출이 EU와 일본에 대한 수출을 합친 규모보다도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표 3> 참조). 특히 미국은 현재 중남미 수입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의 2배,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의 6배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의 결과에 매우 낙관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1986년 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았었으나, 1992년에는 이미 54억 달러의 흑자를 본 바 있다.

미국은 NAFTA 발효 첫해인 1994년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미 상무부는 1994년도 총수출 증가의 절반가량이 캐나다와 멕시코로의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남미 전체 국토 면적의 60%, 인구의 45%, GNP 규모의 55%를 차지하는 MERCOSUR가 미국과 외교정책상 잦은 마찰을 빚어 온 브라질에 의해 주도되고, 1994년 후반들어 EU가 MERCOSUR와 FTA 체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미주자유무역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3. 중남미 국가들의 FTAA 추진배경

중남미 국가들은 1930년대 대공황이후 내부지향적인 수입대체공업화(ISI)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2차산품의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본재 수입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심각한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발전모델을 수출지향전략으로 전환하여 수입생산요소의 비용을 절감하고 내수시장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을 자유화하는 한편 수출시장 확보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전략 전환에는 과거 중남미가 ISI를 고집하는 동안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서 큰 혜택을 보았다는 평가가 반영되었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화와 행정규제 완화, 외국인투자 장려 등 시장경제개혁을 단행했으며,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3자간, 다자간 무역협상 및 지역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은 무역확대와 국내생산증대를 목표로 1930년대와 1960년대에 이미 시도되었으나, 각국의 보호주의와 국가주의(statism), 인프라의 미비, 경제구조의 유사성, 주도 선진국의 부재 등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LAIA)의 창설을 계기로 한 새로운 통합 노력이 1990년대로 이어지면서 수입장벽의 철폐는 물론, 노동력의 이동 및 기타 공동시장의 요소들까지 논의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80%선에 이르는 멕시코를 제외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역통합 노력의 결과, 역내수출이 1986~92년 사이 년평균 15.7%씩 급증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의 제1의 수출시장은 대부분 미국이기 때문에 수출지향 발전전략하에서 미국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출은 절대적인 과제이다. 특히 NAFTA의 출범은 CBI 혜택을 누리던 중미 및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무역 및 투자전환의 불이익을 안겨주어 이들 국가가 NAFTA 가입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게 만들었다. 또한 APEC의 '보고르 선언'은 모든 중남미 국가들에게 아시아에 또다시 기회를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던져주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세계 경제블록화 추세로부터의 소외감에서 탈피하는 한편, 투자증대효과를 노린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MERCOSUR는 미주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무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FTAA 추진에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NAFTA는 미주내 대부분의 나라나 지역블록에 제1의 무역상대이지만, MERCOSUR에게는 서유럽의 비중이 더 크다. (<표 4> 참조)

IV. MERCOSUR의 통합 현황

중남미의 1990년대 지역통합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태인 MERCOSUR 역시 회원국 개혁정부들의 무역자유화 정책에서 비롯됐다. 1990년 7월 6일 폴로르 데 멜루 브라질 대통령과 까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양국의 민영화, 개방화 정책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양국 시장통합을 1995년 1월 1일까지 완결짓는다는 데 합의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91년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합류하여 MERCOSUR를 결성하는 아순시온조약이 체결되었다. 인구 1억5천만에 중남미 총생산의 1/3을 차지하는 브라질이 주도하는 MERCOSUR는 즉각 단계적인 자유무역에 돌입하는 한편 대외공동관세(CET) 협상에 착수하여 마침내 1994년 12월 17일 브라질의 아우로 프레토에서 협상을 매듭짓고 1995년 1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아우로 프레토 협정에 따르면 MERCOSUR는 전체 공통관세분류(NCM) 중 80%가 넘는 품목에 대해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이 역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또한 85%가 넘는 제3국 제품에 대해 대외공동관세를 설정하고 있다. MERCOSUR가 완전한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으로 역할하는 것은 각각 2000년, 2006년 이후로 현재 두 기능은 약 80% 정도 완성되어 있다. 또한 공동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해 10년후 MERCOSUR 회원국들은 공동 통화와 환율, 근로소득세(labor tax) 및 기타 정책분야에서도 조화를 이룰 계획이다. 여기에는 경제주권의 포기나,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필요성 등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남아있어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최근처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통화안정이 지속된다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1. 자유무역지대로서의 MERCOSUR

MERCOSUR 회원국들은 아순시온조약의 무역자유화계획에 따라 조약 조인일인 1991년 3월 26일부터 관세동맹 발효 前日인 1994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인 관세인하를 거의 마무리지었다. 관세인하 일정은 먼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에 체결된 제14호 경제보완협정(ACE No. 14)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부터 관세를 40% 인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MERCOSUR 이름하에 체결된 제18호 경제보완협정(ACE No. 18)에 따라 1991년 6월 30일부터 관세를 47% 인하하는 것을 시

작으로 매 6개월 단위로 7%씩 추가 인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5> 참조).

관세인하일정에 제외된 예외품목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매년 그 수가 20%씩 줄어들어 1994년 12월까지 모두 무관세가 적용되도록 되었고,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 대해서만 1년 뒤인 1995년 12월 31일까지 예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를 매듭짓도록 허용되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MERCOSUR 공통관세분류(NCM)의 총 9,000여 품목 중 약 7,500개 품목의 역내관세가 철폐되었다. 역내무역에서 각국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역내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조정대상품목'으로 불리운다. 조정대상품목의 수입관세는 단계적으로 삭감되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1999년 1월 1일에,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에 완전 철폐된다 (<표 6>, <표 7> 참조).

한편, 역내관세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품은 역내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MERCOSUR 역내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역내 조달비율은 60% 이상이다. 다만 별도 보완협정에 의해 브라질-우루과이간 및 우루과이-파라과이간에 적용되는 역내 조달비율은 50%로 유지된다.

자유무역의 결과, 역내 교역은 1991년 27억 달러규모에서 1994년 120억 달러규모로 344% 증가하였다.

2. 관세동맹으로서의 MERCOSUR

당초 1995년 1월 공동시장 창설을 겨냥했던 MERCOSUR 4국은 1994년 1월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목표를 수정, 1995년 1월을 기해 관세동맹을 발족시키기로 합의했다.

MERCOSUR는 1995년 1월 1일부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0~20%(평균 14%)의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한다. 이미 MERCOSUR 공통관세분류 중 약 8,500개 품목에 대해 공동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가맹국의 국내 산업보호나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재 확보 등의 입장에서 몇가지의 예외조치가 설정되어 있다. 첫째, 기계·기기 등의 자본재에 대한 대외공동관세는 2001년 1월 1일까지 각 가맹국의 수입관세율로부터 대외공동관세율 14%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브라질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여타 3국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둘째,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까지 각 가맹국의 수입관세율로부터 16%로 단계적으

로 조정된다. 브라질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그외 3국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또한 대외공동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품목이 허용되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최대 300개 품목, 파라과이는 최대 399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다.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에는 각국의 수입관세가 적용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01년 1월 1일까지,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2006년 1월 1일까지 대외공동관세로 모두 통일된다(<표 8> 참조).

한편, 1995년 4월 1일부터는 ①조정대상품목 ②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 ③ 자본재 ④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화학, 철강, 정보, 통신기기에 관한 원산지규정은 더욱 많은 역내부품의 사용을 요구하는 특별규제가 설정되어 있다.

별도로 브라질과 우루과이간에는 양국 자동차협정에 따라 1995년의 수입규모가 브라질 1만 대, 우루과이 3천 대로 제한되어 있다. 이들간에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역내 조달비율은 기존모델의 경우 60% 이상, 신모델의 경우 55% 이상으로 규정된다. 양국간 자동차부품 무역은 1995년 1월 1일부터 기본적으로 자유화되고, 관세도 철폐된다. 그러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카펫트, 차축, 차륜, 레이디에이터 등의 부품은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품목은 향후 자동차 부문 특별협정을 통해 자유화된다.

또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MERCOSUR 무역위원회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① 2000년까지 양국간 자동차부문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초안 작성 ② 대외공동관세 설정 ③ 양국간의 경쟁조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국내 인센티브의 철폐 등을 검토케한다. MERCOSUR 무역위원회는 1995년 6월 1일까지 양국간 자동차무역자유화 규정의 주요 내용을 승인하기로 되어 있다. 2000년까지의 이행기간동안 아르헨티나에서는 브라질을 포함한 대외 수출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브라질제품에 대해 관세환급이 인정된다.³⁾

이밖에 상표 및 지적소유권, 마나우스(브라질) 및 띠에라 델 푸에고(아르헨티나) 자유무역지대의 관세특별관리, 농업보조한도에 관한 협상 등이 진행중이다.

3) 브라질은 1995년 들어 무역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의 20%에서 32%로, 다시 32%에서 70%로 인상하여, 완성차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외국자동차 업체들의 국내 생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3. 공동시장으로의 발전계획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에 체결된 제14호 경제보완협정이나 제18호 경제보완협정인 MERCOSUR 협정은 모두 1995년 1월까지 공동시장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공동시장(CM)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자유무역지대(FTA)나, 공동의 무역정책이 추가된 관세동맹(CU)보다 앞선 진전된 개념으로서 자본과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다. 경제통합의 과정으로서 FTA, CU, CM은 순차성을 지니고 있지만, CM까지 이르는 데는 기본적으로 FTA의 실현을 구체화한 제14호, 제18호 경제보완협정에서 더 나아가 CET나 4국의 거시경제정책 조정, 세제 및 부문별 정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4. MERCOSUR 경제통합의 성과

MERCOSUR의 통합과정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의 쌍무 무역증가에서 그 직접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의 통합과정과 무역자유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양국간에 체결된 다수의 무역협정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조조정과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에 나타나듯이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역내시장을 겨냥한 경영전략 및 조직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양국에는 역내시장 광역화로부터 혜택을 입어 역내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출여건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있어 MERCOSUR 정책은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 가장 심화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은 자동차산업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동차자유무역협정(제21호 의정서)을 통해 역내시장 통합을 경험하고 있다. 양국의 통합 자동차시장 규모는 160만대(1993년)인데, 양국에서 영업중인 자동차 관련 회사들은 생산라인 단일화, 국가별 모델 전문화, 일부 부품의 특정국 집중생산, 역내시장을 겨냥한 신규투자 등을 시도하고 있다. 브라질보다 자동차산업이 뒤쳐진 아르헨티나는 부품의 집중생산에서 변속기 등이 배당되고 있는데 이같은 과정을 통해 아르헨티나 산업은 통합 이전보다 모델 생산대수의 증가, 규모의 경제 등을 실현, 모델 전환의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모델 라인을 보다 신속히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간 교역은 쌍무 무역협정의 영향으로 1986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총 교역규모는 1985년 11억 달러에서 1990년 21억 달러로 93% 늘어났다(<표 9> 참조). 1991년 공동시장계획이 발표되면서 관세인하계획은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양국간 교역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총교역은 1992년 50억 달러로 1990년에 비해 2년 사이 130%가 늘어났다. 그러나 양국간 거시경제적 상황 및 환율추이의 차이로 인해 양국간 무역수지는 종전까지 아르헨티나측 흑자에서 브라질측 흑자로 반전되어 아르헨티나는 1992년 17억 달러의 對브라질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 시기 양국 무역의 급증은 특히 아르헨티나의 수입수요증가에 따른 브라질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증가에 기인한다. 이 시기 브라질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365% 늘어난 반면, 아르헨티나의 對브라질 수출은 17.5% 증가에 그쳤다.

거시경제적 차이외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경쟁적인 여건하에서 미시적으로 불균등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가경제정책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시장지향적인데 반해, 브라질은 여전히 적극적인 산업정책운용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 산업은 생산비용에서 조세부담이 브라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르헨티나는 1991년과 1992년 각각 8.9%, 8.7%의 GNP 성장률을 기록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72% 및 23%로 억제하고, 실질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으나, 브라질은 0.9%, -0.9%의 부진한 GNP 성장률과, 440.8%, 1,000%의 고인플레이를 기록, 실질금리의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환율면에서 아르헨티나는 태환법에 따라 MERCOSUR 협정이 조인되던 1991년 3월 이후 1992년 12월까지 페소화의 對美달러화 가치가 상승되었으나, 브라질의 크루제이루화의 對美달러화 가치는 저평가되었다. 아르헨티나의 태환제는 고정환율정책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브라질은 수시로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경쟁력 진작을 추구하였다. 양국의 환율추이는 각자의 무역자유화조치와 상호간의 시장개방조치들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상대가격으로 나타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93년 들어 양국간 무역은 브라질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이 부진해지는 대신, 수입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무역수지가 균형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MERCOSUR의 관세인하계획에 따라 1993년 7월까지 관세가 68%까지 인하되고, 그 이후 75%가 인하되며, 1994년 1월 82%까지 떨어짐으로써 사실상 브라질 시장에의 진출폭이 크게 넓어진 셈이었다. 결과 양국간 쌍무교역 규모는 1992년의 50억 달러에서 1993년 64억 달러로 27%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對브라질

수출은 67%가 늘어나 브라질의 총수입에서 아르헨티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8.2%에서 10.3%로 높아졌다. 반면, 브라질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6.9% 증가에 그쳤고, 아르헨티나 시장 점유율은 전년의 8.5%에서 9.4%로 높아졌다(<표 10>, <표 11> 참조). 아르헨티나의 對브라질 무역적자 규모도 전년의 절반 수준인 7억 8,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아르헨티나의 수출증대는 1차산품에서 밀이 37%, 석유가 306%, 제조업계에서 자동차와 부속품이 139.6%, 기계류와 전기설비가 84.5%, 농가공품에서 수산가공품이 45%, 유제품이 5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1993년 아르헨티나의 수출이 급증한 것은 양국경제의 통합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였다. 그 주된 요인은 1993년 상반기에 브라질의 GDP가 5% 성장, 수요가 회복된 데 있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국영석유회사(PETROBRAS)의 아르헨티나산 원유구매 및 아르헨티나 자동차산업에 대한 보상조치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아르헨티나산 구매를 촉진시킴으로써 양국간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관리무역결정을 내린 점도 주효했다.

한편 MERCOSUR 전체적으로 볼 때, 역내교역은 1990년 41억 달러에서 1992년 73억 달러로 79% 증가했다. 절대치로 MERCOSUR 전 회원국의 역내시장 수출이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의 수입급증이 역내 교역을 활성화시켰음은 물론이다. 아르헨티나의 對MERCOSUR 수입은 1990-92년 동안 329% 늘어난 반면, 브라질의 對MERCOSUR 수입은 오히려 4.4%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수입면에서 아르헨티나가 MERCOSUR 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1%에서 1992년 51.2%로 늘어났고, 아르헨티나보다 경제규모가 3배가 큰 브라질의 수입비중은 같은 기간 56.7%에서 30.3%로 줄어들었다. 또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수입 비중역시 상대적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수출면에서 보면, 브라질의 MERCOSUR 역내시장에서의 비중은 1990년 32%에서 56.3%로, 아르헨티나는 44.4%에서 31.7%로 증감되었고,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브라질의 경제가 호전되면서 MERCOSUR 역내 교역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1994년 7월 레알플랜의 성공으로 브라질의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브라질의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나 95년 상반기 아르헨티나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0%이상 증가, 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對브라질 수출증가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4년만에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아르헨티나의 95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전년도 동기 29억 1천만 달러 적자에 비해 8억

8,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對브라질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이야말로 역내 교역의 불균등 성장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다. 따라서 MERCOSUR의 장래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브라질 경제가 앞으로 안정과 경제회복을 지속해 나가느냐이다. 여기에는 브라질의 소비자 물가안정의 여부가 커다란 관건이다. 또한 브라질 거시경제의 안정문제로부터 회원국들간의 무역성장의 균형문제, 경제정책조정 및 조화문제, 공동관세율 합의문제 등이 파생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V. MERCOSUR의 대외 협상전략

MERCOSUR의 무역정책 전략가들이 관세동맹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역블록으로서의 국제협상력 증대 및 공동무역정책을 추구, 상품의 우회침투(triangulation) 기회를 줄이는 국경통제 단순화 등의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세동맹 방식은 전략상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자유무역지대와 비교할 때, 관세동맹은 무역블록의 대결을 초래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관세동맹은 회원국들의 역외무역정책을 구속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단일화 및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이상적이긴 하나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경제안정화 단계 및 경제개혁(규제완화, 민영화, 무역 및 투자자유화) 단계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비현실적이기 마련이다.

1. SAFTA 추진

MERCOSUR내 超大國인 브라질은 1994년 1월과 3월 MERCOSUR를 확대하여 남미자유무역지대(Area de Libre Comercio Sudamericana: ALCSA: South American Free Trade Area: SAFTA)를 창설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도 SAFTA가 안데스 그룹과 MERCOSUR간의 수렴동질화(convergence)에 도움이 되고, 칠레를 지역주의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기 때문에 찬성했다.

MERCOSUR는 1994년 8월 대외공동관세에 관한 기본협상을 매듭지은 후 칠레와 볼리비아와의 FTA 체결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995년 2월부터는 안데스 그룹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보이기 시작해 SAFTA 창설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MERCOSUR와 칠레간, 그리고 MERCOSUR와 안데스그룹간의 FTA는 해당국 다수에게 대서양과 태평양으로의 무역진출로 확보, 그리고 보다 큰 시장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상의 이점, 또한 향후 FTAA와 같은 무역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와 같은 이점을 약속하고 있다.

칠레는 1980년 몬테비데오조약에 참여했으나, 1980년대에 중남미 각국이 외채위기에 이어 불황과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자 이 지역에 무역정책의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칠레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던 1970년대, 1980년대와는 달리,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이웃 국가들이 보호주의를 점차 포기하고 개방화에 매진하면서 MERCOSUR 확대추세를 보이자 칠레는 이를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칠레의 對MERCOSUR 수출은 MERCOSUR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1993년 10억 8,920만 달러로 對ALADI 수출의 61%를 차지했으며, 총수출대비 비중도 1991년 8.5%에서 11.6%로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對MERCOSUR 수출품목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칠레에게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교역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관심사는 칠레와 MERCOSUR간의 제휴가 어떠한 형태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초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역내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칠레의 MERCOSUR 가입을 적극 권장해왔다. 또한 1994년 취임한 프레이 칠레 대통령은 MERCOSUR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의 MERCOSUR 가입가능성은 현 단계로서는 희박하다. 무엇보다도 칠레는 단일 수입관세율을 11%로 정하고 있어, MERCOSUR의 CET 최고 20%, 평균 14%보다 낮다. 에일윈 행정부 당시 MERCOSUR가 CM을 추구할 경우 가입할 의사가 없을 밝힌 점은 여기에 근거한다. 칠레가 만일 관세동맹인 MERCOSUR에 가입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해야만 한다면 이에 따른 무역전환 비용은 무역창출의 이득보다 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MERCOSUR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적 안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점도 칠레가 선뜻 MERCOSUR 가입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1995년 초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입혀 국제 금융기관의 긴급지원을 필요로 했던 점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칠레는 MERCOSUR가 FTA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MERCOSUR가 FTA를 형성한다면, 역내시장에 대한 진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칠레와의 쌍무무역특혜협정 및 일방적인 무역자유화조치와 수요회복에 힘입어 1993년에 칠레의 제3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고, 특히 제조품에서 제1의 수출대

상국, 해외투자에서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칠레는 MERCOSUR와 아무런 긴밀한 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무역창출로 발생할 1억2,500만 달러의 수출과 1억7,000만 달러의 수입을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MERCOSUR와 어떤 형태로든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역내시장의 규모에 매혹된 외국인투자가 쇄도할 것이기 때문에 MERCOSUR가 이미 CM으로 발전한 이상 칠레에게 최선의 선택은 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길이다.

볼리비아의 경우에도 MERCOSUR에 대한 참여에 큰 관심을 표해왔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일종의 특별지위를 요구해왔으나 MERCOSUR측에 의해 거절당해왔다.

MERCOSUR와 안데스그룹은 1995년 2월 23~24일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1차 각료회의에서 1995년 6월 30일까지 FTA 협상을 종결짓고 7월 1일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5년에는 전면적인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후 양측은 3월 23~24일 2차협상에서 1980년 몬테비데오 조약(LAIA 창설조약)에 저개발국으로 분류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 대해 차별관세혜택을 부여할 것 인지의 여부와 가격 밴드 설정문제에 이견을 보여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MERCOSUR와 안데스 그룹 및 칠레간의 관계강화는 각 레벨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SAFTA의 출범은 머지 않아 이루어질 전망이다. MERCOSUR와 칠레간에, 그리고 MERCOSUR와 안데스 그룹간에 FTA가 체결되고, 칠레와 안데스 그룹 각 회원국들간에 쌍무무역협정들이 심화·발전된다면, SAFTA는 사실상 출범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SAFTA 구상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를 추진하는 브라질은 MERCOSUR를 관세동맹, 더 나아가 공동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이다. MERCOSUR내 다른 회원국들은 방대한 브라질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보다 큰 역내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무역전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칠레와 같은 경쟁국가들은 MERCOSUR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무역전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MERCOSUR 시장에 보다 자유로운 진출을 향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MERCOSUR가 CU가 아니라 FTA를 추구했다면 이러한 모순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⁴⁾

4) 무역창출은 상대 회원국으로부터 국내의 비싼 산품을 대체하는 저가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무역전환은 역외로부터의 저가수입이 상대회원국들로부터의 고가품 수입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한다. 무역창출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주므로 이익이 되지만, 무역전환은 결과적으로 수입국이나 세계적으로 볼 때 복지수준의 손실을 초래한다. FTA의 경우에는 역외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일방적으로 낮춤으로써 무역전환으로 인한 복지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회원국들간에 시간이 흐를 수록 최저 관

2. EU와의 FTA 협상

MERCOSUR 4개국 정상들은 1994년 8월 5일 EU와의 관계강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EU 각료이사회는 10월 19일 MERCOSUR와의 지역간 협력 및 자유무역을 제창하는 '자문문서'를 채택하였다. 이어 양 기구의 각료들은 11월 24일 브뤼셀에서 확대회의를 갖고 경제위원회 설치와 자유무역 실시 문제를 논의했으며, 12월 22일에는 양 지역간 협력을 위한 첫 공동선언을 발표되었다. 1995년 4월 4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MERCOSUR와의 경제협력협정 협상을 연내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상에는 경제, 무역뿐만 아니라 MERCOSUR의 효과적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협력체제 구축도 포함된다. 양측은 1995년 9월까지 FTA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할 예정이다.

EU는 MERCOSUR의 최대 교역상대로서 1985~92년 사이 MERCOSUR 총교역의 26%(1992년 232억 달러)를 차지했고, 1990~1993년 사이에는 대 MERCOSUR 수출을 년평균 40%이상 증가시켜왔다. EU와 MERCOSUR가 관계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대 시장에서의 기존 경제적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각자 NAFTA에 대응하는 입지 및 협상력 제고를 노리기 때문이다.⁵⁾ 특히 MERCOSUR는 NAFTA 출범에 자극받아 남미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그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도모해왔다.

EU는 MERCOSUR가 완전한 관세동맹을 형성하는 2006년부터 MERCOSUR와 자유무역을 시작한다는 목표하에 단계적으로 경제 및 여타 분야에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EU는 품목의 표준 통일, 원산지 규정, 내수시장 형성을 위한 기술 지원, 교통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산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MERCOSUR가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세장벽을 향하여 수렴되어 가는 경향을 띠게 된다. 반면, CU(또는 CM)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공동의 무역정책에 묶여 일방적인 무역정책 변경을 결정할 수 없고, MERCOSUR의 경우처럼 회원국중 무역대국(브라질)이 高關稅 국가인 경우에는 공동 대외관세율이 현존 최고수준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므로 복지손실을 피할 수가 없다(Nofal 1994, 151-3).

- 5) EU는 MERCOSUR 회원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공적원조(ODA)의 42%(1992년 2억 7,000만 ECU: 1ECU는 약 1,030원)를 담당했다.

VI. MERCOSUR의 대외협상 전략이 FTAA 협상에 미치는 영향

MERCOSUR의 독자적인 자유무역 확대노력은 현재 미주 국가들이 NAFTA 확대, 쌍무협정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hub and spoke), 그리고 지역협정간의 통합 등 제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A 실현 방식에 복합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 미국의 협상 원칙

NAFTA는 지적재산권과, 노동 및 환경보호, 정부조달사업, 서비스, 통상 및 투자에 관한 권리·의무 등 통상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향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상의 선례를 남겼다. NAFTA는 멕시코의 무역관련법 규정의 개정을 조건으로 CUSFTA의 분쟁해결제도를 멕시코로 확대하였다. 캔터 미 무역대표는 NAFTA를 FTAA의 모델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그 이유는 NAFTA가 멕시코로 하여금 국가간섭적인 산업정책 요소들을 철폐하고, 歐美의 기업활동 법체계 채택을 위해 노력하도록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남미에서 비교적 시장경제 개혁이 실현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도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자원활용, 일정한 수출성과 등의 요구, 자동차 수입규제, 보조금, 반트러스트법 적용부실, 지적재산권 미보호, 외국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등으로 미국의 수출이 큰 제한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이 'NAFTA 방식'을 고수하는 데는 NAFTA 3국이 미주내 총무역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미주제국에 대한 수출의 80%가 캐나다와 멕시코로 향하고 있는 상황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개혁과 개방화가 앞선 칠레를 1994년 12월 미주정상회의 기간중 NAFTA 추가가입국으로 지정한 것도 미국이 FTAA 협상원칙으로 NAFTA 확대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콜롬비아 등을 차기 NAFTA 추가가입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NAFTA 추가가입국과 협상을 진행시키기에 앞서 필요한 신속처리 협상권한을 의회로부터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에서는 1995년 8월초 신속처리 협상권한에 대한 심의를 8월 휴회이후로 연기키로 결정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NAFTA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호론자들의 압력도 상당히 받고 있어 NAFTA 내실화를 위해 상품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효율화, 위생기준개선, 환경개선 등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의 FTAA 협상전략은 NAFTA를 강화하는 한편, NAFTA 수준의 개방과 개혁을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수락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NAFTA 확대를 통한 FTAA의 실현 방식은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들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NAFTA는 특정한 지역에 속한 국가들에만 신규가입을 허용하는 지역폐쇄적인 조약이 아니라, 매우 개방적인 조약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주내의 다른 지역협정들은 지역적인 한계성을 띠고 있어 이론적으로 미주 전체를 포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2. MERCOSUR의 협상원칙

브라질을 주축으로 한 MERCOSUR는 먼저 MERCOSUR의 관세동맹 및 공동시장으로의 발전 등 내적심화에 노력하는 한편, 여타 남미 국가들과 SAFTA를 완성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MERCOSUR가 미국의 NAFTA 확대방침을 기피하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공통된 이유에 따른 것이다.

우선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NAFTA 확대방침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본래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았고, 독특한 권위주의 정치제도가 작용하여 NAFTA 협상기간동안 대통령에 의회, 노조, 기업인, 농민, 언론, 야당으로부터 자율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여타 중남미 국가의 경우에는 미국의 'NAFTA 수준의 개방' 요구가 개혁정부에 정치경제적으로 주는 부담이 크다. 즉 이들 국가의 경우, 자유무역을 가져오는 이점은 장기적이며 간접적인 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커 이를 감내할 이념적 공감대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⁶⁾

그러므로 MERCOSUR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조건을 수용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을 달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1994년 12월 20일 멕

6) 만일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면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품의 비용을 상승시키게 되고, 환경기준을 강조한다면 국내적으로 시급한 분야에 쓰여질 재원이 북미가 정한 우선사업(예를 들어, 환경보호)에 유용될 것이므로 중남미 정부들로서는 대국민 설득력을 잃게 된다.

코 정부의 폐소화 평가절하로 시작된 멕시코 금융위기는 정정불안과 환율정책운용상의 실책 등의 요인도 작용했지만, 수입급증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1994년 총 115억 달러, 대미 100억 달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만큼 중남미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경쟁력 수준에 우려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이 인식하는 멕시코의 교훈은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단기적으로 미국상품 수입의 급증을 의미하며, 개방된 무역체제가 무역수지로 인한 위기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NAFTA 발효 이후 발생했던 멕시코의 무역불균형 심화현상은 향후 MERCOSUR 국가들의 FTAA 협상태도를 더욱 보수화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MERCOSUR내 4국은 대외경제정책에서 이질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먼저 브라질은 중남미, 적어도 남미에서 지도력을 장악하려는 의도하에 MERCOSUR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SAFTA를 형성하여 NAFTA와 협상하려는 전략이다. 그럼으로써 브라질은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중남미에서의 패권을 유지해가려 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미국 또는 NAFTA와의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NAFTA 가입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것이 MERCOSUR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NAFTA 카드를 對브라질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NAFTA 협상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켜 본협정외에 부속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던 노동 및 환경 문제는 FTAA 추진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중남미 국가들의 희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즉, 제1차 미주무역장관회의에서 이를 협상에 포함시키지 말고 각국의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일단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캔터 미 무역대표는 일부 분야에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향후 협상의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한다.

VII. 결론

미주의 경제통합은 1990년 부시 이니셔티브(EAI)로부터 1994년 마이애미 미주정상회의를 거쳐 1995년 덴버 미주 무역장관회의에 이르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논의의 기본 원칙이 현존하는 지역협정들에 기초한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기존 협정들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과연 지역협정으로 가장 활성화된 MERCOSUR와 NAFTA가 FTAA 실현에 서

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 많다. 또한 본질적으로 관세동맹인 MERCOSUR가 다른 남미국가들이나 NAFTA 회원국들과의 무역관계 변화를 통해 FTAA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그 운용 여하에 달려 있다. 분명한 점은 MERCOSUR가 CU 방식을 채택한 이상 FTAA의 실현은 MERCOSUR가 FTA 형식일 경우보다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MERCOSUR가 외부지향적인 성향 즉, 대외개방을 지속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양립성을 유지해 간다면 MERCOSUR와 NAFTA간의 수렴 가능성은 밝다. MERCOSUR가 설정한 최고 CET가 20%로서 역내 최대국인 브라질의 최고관세율보다 낮은 점은 일단 이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 원칙인 '역외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장벽의 설치금지'가 준수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상품들을 놓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파라과이나 우루과이가 종전까지 적용하던 관세율보다 높은 CET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또 최근 브라질이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상한데 이어 쿼터제를 실시하는 바와 같은 조치는 비록 CET 체계를 이탈한 조치는 아니었지만, 브라질 무역정책의 개방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MERCOSUR의 경우를 중남미의 일반화된 미주자유무역 지향 경향에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MERCOSUR가 통합가 매우 높은 지역협력체라는 점과, 북미국가들과 경제통합추진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무역구조상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MERCOSUR가 NAFTA의 협상상대로서의 입지가 강화되는 데에는 SAFTA의 실현 가능성, 미국과 브라질간의 관계개선, MERCOSUR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적 안정, 아르헨티나의 NAFTA 카드 사용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다. SAFTA의 등장은 대미 FTAA 협상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입지를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은 SAFTA의 형성을 견제하기 위해 안데스그룹 국가들에 대해 무역특혜를 부여하거나, 한 때 NAFTA 가입을 희망했던 아르헨티나를 NAFTA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에도 협상조건상의 장애는 여전한데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MERCOSUR의 대외공동관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를 MERCOSUR에서 이탈시키게 될 것이므로 정치적 부담이 커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MERCOSUR는 SAFTA를 통한 입지제고와 EU와의 FTA 협상을 통한 간접적 압력, 그리고 미 의회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의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통해,⁷⁾

최소 조건의 FTAA 협상을 진행시키려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의 시장규모로 볼 때 FTAA의 출발점은 NAFTA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적어도 34개국이 참여할 FTAA는 거대한 체제이므로 합의에 이르는 데는 순수히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향한 의지보다는 국제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NAFTA 확대전략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NA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비준 문제로 정치적 모험을 겪은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국내 여론의 강력한 지지 없이 FTAA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덴버회의에서 합의된 무역협상 실무반들이 만들어내는 특정 제안들에 관해 합의하는데 필요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을 의회로부터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아직 NAFTA 방식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적 체제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셈이다. 미국 관리들은 1995년내로 행정부가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FTAA 협상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은 실추될 것이고 NAFTA가 FTAA 협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MERCOSUR와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지도권을 쥐고 새로운 개념의 FTAA를 추진해 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당분간 FTAA 협상은 협상을 위한 조직정비에 치중하고, 기존 지역협정들의 내실화 및 확대, 지역협정간의 FTA 협상, 쌍무협상 등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⁸⁾

7) 클린턴 행정부는 노동 및 환경보호 협상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추구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외투자를 통한 이윤증대를 꾀하고 있는 기업인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共和黨측은 美國이 장래 체결할 자유무역협정들이 까다롭게 노동 및 환경문제와 연계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8) 미국의회에서는 중간단계로서 CBI 수혜국인 중미 및 카리브해제국에 대해 NAFTA 회원국과의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는 이른바 'NAFTA parity'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양보조건인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표 1> 미주의 주요 지역별 경제통합 현황

지역통합체	체결년도	유 형	회 원 국
중미공동시장(CACM)	1960	공동시장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안데스그룹	1969	관세동맹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카리브공동체(CARICOM)	1973	관세동맹	안티과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1991	관세동맹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3	자유무역지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주1) 페루는 1992년 8월 경제정책상의 차이를 이유로 안데스그룹으로부터 탈퇴했다가 1994년 4월 조건부로 복귀했으며, 1995년 6월에는 1996년 1월까지 완전복귀키로 합의하였다.

출처: *Business America*, December 1994.

<표 2> 美洲의 시장규모

	인 구 (1993, 백만명)	G D P (1993, 백만달러)	총 수 출 (1993, 백만달러)	총 수 입 (1993, 백만달러)
NAFTA	376.30	7,736,700	613,400	772,800
MERCOSUR	198.52	1,004,200	53,828	45,080
안데스그룹	96.33	480,600	28,552	25,870
CARICOM	5.79	28,565	3,845	5,815
CACM	28.52	81,200	5,008	9,407
칠레	13.74	96,000	10,000	9,200
기타 ¹⁾	17.08	40,970	1,739	5,373
중남미 ²⁾	450.38	2,471,535	153,472	166,245
美洲 ²⁾	736.28	9,468,235	711,369	873,545

주1) 수리남,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파나마.

2) 쿠바제외 (쿠바지표: 인구 1,090만, 총수출 17억 달러, 총수입 23억 달러)

출처: *Business America*, December 1994.

<표 3> 美國의 世界貿易 推移, 1985~93 (단위: 10억 달러)

교역 상대국	1985	1990	1993	1985~93 변화율(%)
輸 出				
中南美 ¹⁾	17.0	25.7	36.8	116.5
멕시코	13.6	28.4	41.6	205.9
東아시아 ²⁾	24.7	56.5	78.0	215.8
日 本	22.2	48.6	47.9	115.8
캐나다	52.9	83.0	100.2	89.4
EU	48.3	98.0	97.0	100.8
其他	40.5	52.8	63.4	56.5
全世界	219.2	393.0	464.9	112.1
輸 入				
中南美 ¹⁾	27.8	33.8	34.5	24.1
멕시코	19.1	30.2	39.9	108.9
東아시아 ²⁾	53.7	93.9	126.3	135.2
日 本	68.8	90.4	107.3	56.0
캐나다	69.0	91.4	110.9	60.7
EU	67.8	91.9	98.0	44.5
其他	39.1	64.4	63.6	62.7
全世界	345.3	496.0	580.5	68.1

주1) 멕시코 제외.

2) 日本 제외.

출처: 美 商務部, 1994.

<표 4> 중남미의 서유럽 및 NAFTA와의 교역비중

	서유럽	NAFTA
MERCOSUR	27.6%	22.5%
볼리비아	22.8%	18.6%
수리남	39.2%	12.4%
가이아나	43.4%	35.2%
<NAFTA와의 교역규모가 큰 지역>		
CACM	N/A	48.8%
CARICOM	N/A	48.8%
G-3	N/A	65%
안데스그룹	N/A	46.1%

출처: FIEL, *Indicadores de Coyuntura* No. 347 (julio 1995), 43.

<표 5> 경제보완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일정

기준일	브라질-아르헨티나 (ACE No. 14)	MERCOSUR (ACE No. 18)
1990. 12. 31	40	
1991. 6. 30	47	47
1991. 12. 31	54	54
1992. 6. 30	61	61
1992. 12. 31	68	68
1993. 6. 30	75	75
1993. 12. 31	82	82
1994. 6. 30	89	89
1994. 12. 31	100	100

출처: Nofal 1994, p. 138.

<표 6> 조정대상품목 및 관세삭감 일정

(단위: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브라질(29개 품목)	적용	25	50	75	100	—
아르헨티나(221개 품목)	적용	25	50	75	100	—
파라과이(427개 품목)	—	적용	25	50	75	100
우루과이(950개 품목)	—	적용	25	50	75	100

주1) 우루과이의 950개 품목 중 200개 품목은 브라질, 우루과이간의 1991년 경제 보완협정(ACE-2)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며, 약 1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간의 1985년 경제보완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된다.

자료: 브라질전국공업연맹(CNI)

<표 7> 국가별 주요 조정대상품목

브라질	복숭아, 포도주, 카본, 고무제 후판·박판·세판, 양모섬유
아르헨티나	인스턴트 커피, 목재, 섬유제품, 오렌지쥬스, 피혁, 마그네슘광, 철선·강선, 강철제후판·박판·세판, 강철관, 종이, 냉장고·냉동고, 자동차·트랙터용 타이어, 고분자 폴리에틸렌, 알루미늄제납비, 목재가구
우루과이	테니스화, 철강제품, 유제품, 소맥분, 신선과일, 각종야채
파라과이	바느질용 또는 침구·테이블용 섬유, 유제품류, 연료용유액, 쌀, 담배류, 의약품, 피혁류, 목재(열대수), 종이관련제품, 면, 변압기, 목제·금속제가구

자료: 'MERCOSUR 통합을 위한 브라질 기업협회(ADEBIM)'

<표 8>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 수

	최대허용품목수	예외품목수
브라질	300	175
아르헨티나	300	231
우루과이	300	212
파라과이	399	213

주) 예외품목수는 1994년 12월말까지 각국이 제출한 품목 수이다.

자료: 브라질전국공업연맹(CNI)

<표 9> 아르헨티나-브라질 양국간 교역

<단위: 백만 달러, (%)>

	對브라질 수출	對브라질 수입	총 교역량	무역수지
1980	765.0	1,072.3	1,837.3	-307.3
1981	595.1	893.3	1,488.4	-298.2
1982	567.7	687.7	1,255.4	-120.0
1983	358.3	666.8	1,025.1	-308.5
1984	478.2	831.2	1,309.4	-353.0
1985	496.3	611.5	1,107.8	-115.2
1986	698.1	691.3	1,389.4	6.8
1987	539.3	819.2	1,358.5	-279.9
1988	607.9	971.4	1,579.3	-363.5
1989	1,124.1	721.4	1,845.5	402.7
1990	1,422.5	717.9	2,140.4	704.6
1991	1,488.6	1,526.3	3,014.9	-37.7
1992	1,671.4	3,338.8	5,010.2	-1,667.4
1993	2,790.5	3,569.9	6,360.4	-779.4
1994	3,595.3	4,280.1	7,875.4	-684.8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 전년대비 변화율

	對브라질 수출	對브라질 수입	총 교역량
1981/80	-22.2	-16.7	-19.0
1982/81	-4.6	-23.0	-15.7
1983/82	-36.9	-3.0	-18.3
1984/83	33.5	24.7	27.7
1985/84	3.8	-26.4	-15.4
1986/85	40.7	13.0	25.4
1987/86	-22.7	18.5	-2.2
1988/87	12.7	18.6	16.3
1989/88	84.9	-25.7	16.8
1990/89	26.6	-0.5	16.0
1991/90	4.6	112.6	40.9
1992/91	12.3	118.8	66.2
1993/92	67.0	6.9	26.9
1994/93	28.8	19.8	23.8
1990/85	186.6	17.4	93.2
1994/90	152.7	486.1	267.9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표 10> 아르헨티나의 對MERCOSUR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MERCOSUR
1988	607.9(6.7)	79.9(0.9)	187.4(2.0)	875.2(9.6)
1989	1,124.4(11.7)	96.3(1.0)	207.7(2.2)	1,428.4(14.9)
1990	1,422.7(11.5)	147.4(1.2)	262.6(2.1)	1,832.7(14.8)
1991	1,488.5(12.4)	178.0(1.5)	311.0(2.6)	1,977.5(16.5)
1992	1,671.3(13.7)	271.9(2.2)	383.6(3.1)	2,326.8(19.0)
1993	2,790.5(21.3)	357.8(2.7)	512.7(4.0)	3,661.0(28.0)
1994	3,595.3(22.8)	495.0(3.2)	649.6(4.1)	4,739.9(30.1)

주) 괄호안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의 對MERCOSUR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MERCOSUR
1988	971.4(18.3)	67.6(1.3)	130.9(2.4)	1,169.9(22.0)
1989	721.4(17.2)	48.8(1.2)	98.9(2.3)	869.1(20.7)
1990	717.9(17.6)	41.6(1.0)	116.1(2.9)	875.6(21.5)
1991	1,526.3(18.4)	42.8(0.5)	235.2(2.9)	1,804.3(21.8)
1992	3,338.8(22.5)	64.7(0.4)	351.2(2.3)	3,754.7(25.2)
1993	3,569.9(21.3)	72.9(0.4)	570.8(3.4)	4,213.6(25.1)
1994	4,280.1(19.9)	69.1(0.3)	779.7(3.6)	5,128.9(23.8)

주) 괄호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표 11> 브라질의 對MERCOSUR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MERCOSUR
1988	976.5(2.9)	340.8(1.0)	321.2(0.9)	1,638.5(4.8)
1989	725.0(2.1)	321.0(0.9)	333.6(1.0)	1,379.6(4.0)
1990	645.2(2.1)	380.5(1.2)	294.6(0.9)	1,320.3(4.2)
1991	1,476.2(4.7)	496.1(1.5)	337.1(1.1)	2,309.4(7.3)
1992	3,039.8(8.5)	543.3(1.5)	514.2(1.4)	4,097.3(11.4)
1993	3,661.5(9.4)	960.6(2.5)	774.8(2.0)	5,396.9(13.9)
1994	4,280.1(9.8)	-	-	5,918.0(13.5)

주) 괄호안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브라질 DTIC와 미국 NTDB

브라질의 對MERCOSUR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MERCOSUR
1988	706.0(4.8)	117.4(0.8)	313.9(2.2)	1,137.3(7.8)
1989	1,248.0(6.8)	358.8(2.0)	596.1(3.3)	2,202.9(12.1)
1990	1,412.4(6.8)	329.7(1.6)	584.6(2.8)	2,326.8(11.3)
1991	1,614.7(7.7)	219.6(1.0)	434.1(2.1)	2,268.4(10.8)
1992	1,687.1(8.2)	184.6(0.9)	342.9(1.7)	2,214.6(10.8)
1993	2,814.2(10.9)	-	-	3,326.0(12.9)
1994	3,595.3(10.9)	-	-	4,659.0(14.0)

주) 괄호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브라질 DTIC와 미국 NTDB

참고문헌

- 김우택, “라틴 아메리카 통합연합(LAIA)을 통한 라틴 아메리카의 접근”, 『라틴 아메리카 경제통합기구 연구』(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1990)
- Ambito Financiero* (1994), “Chile Mira al MERCOSUR,” Buenos Aires, 13 de abril.
- Business Americ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Commerce), Dec. 1994.
- FIEL. (Fundación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Latinoamericanas) (1995), “El MERCOSUR y la Cumbre de Denver sobre comercio hemisférico” *Indicadores de Coyuntura* No. 347 (julio), 42-3.
- Inside U.S. Trade*, Feb. 10 & Mar. 24, 1995.
- Morici, Peter, *Free Trade in the Americas*.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Press, 1994.
- Nofal, María Beatriz (1993), “Economic Integration of Argentina-Brazil, MERCOSUR and Regionalization in the Southern Cone Market,” in E. Echeverrie-Carrol, ed. *NAFTA and Trade Liberalization in the Americas* (Austin: University of Texas).
- _____ (1994), “MERCOSUR and Free Trade in the Americas,” Sidney Weintraub, ed. *Integrating the Americas: Shaping Future Trade Policy* (Miami: North-South Center), 137-68.
- Saborio, Sylvia, *The Premise and the Promise: Free Trade in the Americas* Washington, D.C.: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1992.
- Summit of the Americas, *Declaration of Principles & Plan of Action* Dec. 9-11, 1994. Miami, Florida.
- Weintraub, Sidney, ed. *Integrating the Americas: Shaping Future Trade Policy*. Miami: North-South Center, 1994.

MERCOSUR AND NEGOTIATIONS FOR FREE TRADE IN THE AMERICAS

The 34 countries in the Americas have agreed to create a Western Hemisphere or Americas free trade area(FTAA) by 2005. Negotiations for this have begun in June 1995 and seven working groups were established, and four more will operate from March 1996. Given the independent sub-regional economic integrations, represented by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the Southern Cone Common Market(MERCOSUR), the Andean Group, the Caribbean Common Market, and the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the continent-wide FTAA negotiations will be very difficult to proceed.

Especially, the custom union MERCOSUR, which is the most integrated sub-regional group, has its own scheme to integrate the South American market while the United States, the largest and the most influential economy, hopes to take NAFTA as the expanding core for a FTAA. At present, MERCOSUR's utmost concerns are with enhancing intraregional trade and upgrading its negotiation leverage vis-à-vi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us, MERCOSUR factor in FTAA negotiations is not so much positive, but there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American political interactions among Brazil and the United States, Brazil and Argentina, and MERCOSUR, Andean Group, and Chile, and finally MERCOSUR and European Union to tell the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For the time being, FTAA negotiations will go without active engagements by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its Administration-Congress politics, and by Brazil because of its strategy to build a South American free trade area under her hegemony.